

대학사의 주요 기록(하)

- 그 자료와 해설 -

이 광 주 인제대 명예교수

10. 고도 산업사회와 멀티버시티

오늘날의 산업대중사회는 고등교육의 대중화를 초래, 칼리지 중심의 중세 대학은 물론 근대적인 유니버시티와는 그 규모나 내용 그리고 기능에 있어 극히 다른 다원적인 대학, 즉 '멀티버시티(multiversity)'의 출현을 가져 왔다.

교양과 전문직을 지향한 지난날의 대학은 일부 엘리트 계층의 대학이었으며 학위 증서는 계층 사회의 신분의 징표요 푸코가 지적하였듯이 지식의 권력이 되고 있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의 제2차 산업혁명은 신분사회를 무너뜨리고 균등한 대중사회를 창출하였으니 대학 또한 대중사회에 발을 맞추어 만민에게 열린 시민 모두의 대학으로 변모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엄청나게 증대된 학생수에서 우선 드러났다. 1960년대 후반기 대학생의 대비 정령 인구수는 미국 46.6%, 영국 12.6%, 프랑스 13%, 서독 8.7%, 일본 16.7%이다. 대학의 대중화를 보통 인구 비율 15%이상으로 간주하는 바 학생은 더 이상 엘리트층이 아니라 대중(mass student)에 속한다.

대학의 대중화 현상은 대학의 맘모스화를 초래하여 캘리포니아 대학의 경우 이미 1960년 초에 9개 캠퍼스에 10만 명 이상의 학생에 교직원수는 4만 명을 헤아렸다.

파리 대학의 학생수는 1966년 당시 약 13만 명이며 소르본으로 불리는 문학부만도 4만 명에 이른다. 한편 같은 무렵 인도의 캘커타 대학의 학생수는 16만 명, 멕시코 대학 또한 학생 9만4천 명에 교수수 1만 명으로 대학의 맘모스화는 선·후진국 공통의 현상이 되었다. 맘모스 대학의 존재는 정령 인구비 50%를 넘는 대학의 유니버설 현상을 낳고 있다. 이제 고등교육의 대상은 전 국민이 되었다.

학생의 진학 동기, 선발 기능, 교과 과정, 학생과 교수의 관계, 교육과 연구 방법, 운영과 관리의 방식 등 대학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초래한 멀티버시티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 거대한 규모보다도, 코넬 대학의 '만능 교과목의 이념(the idea of all purpose curriculum)'에서 보듯이 '산업화' 과학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분화되고 전문화된 점에 있다고 할 것이다.

'만능 교과목'의 학풍은 특히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극대화된다. 예를 들어 1962년 당시 캘리포니아 대학은 IBM사 이상으로 다원화되어 1백 개소 이상에 걸쳐 활동을 벌이고 50개국 이상의 해외 프로젝트를 지냈다. 그리고 강좌수만도 1만 종이 넘고 253종의 교과목을 설정한 공학부에는 드라이 클리닝 공학, 218종을 지닌 교육학 부에는 자동차 운전, 안전 교육 등의 교과목도 있었다.

멀티버시티는 캘리포니아 대학 총장을 지낸 클라크 커의 말 그대로 '두뇌의 도시 국가Idiopolis'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멀티버시티라는 지적 국가가 철저하게 국가 및 대기업의 자기 중심적인 산업 전략에 의해 관리되고 운영되고 있는 '산업국가'라는 사실이다. 우리들은 이러한 현상을 고도 기술정보산업사회에 불가피한 것으로서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다.

대학의 본질은 연구와 교육에 있다. 그러나 '산업화' 과학의 절대 우위는 인문·사회과학과 기초과학 및 기술과학 간의 불균형을 낳고 특히 연구와 교육의 불협화음을 초래하였다.

현대 학문은 특수 정밀과학을 지향한다. 그러나 학문의 지나친 '전문성'은 '사람됨'의 교육의 부재를 초래하고 그 결과 인간적인 연대와 정체성, 그리고 그 위에 비로소 구축될 수 있는 공동체적 공공성(公共性)의 결여를 낳게 마련이다. 공동된 언어를 상실한 아톰적인 전문직만의 사회, 그러한 사회 속의 도구적 기술 지배의 메커니즘, 오늘날의 인간 소외 현상 내지 문화 위기의 밑바닥에 우리들은 공통의 지향, 공통의 이상 없이, '지적' 내용이나 '사색'과 관련이 없는 단순한 기술과목만을 연수받은 어중이떠중이의 각종 전문·기술가 집단의 양성을 능사로 여기는 멀티버시티라는 바벨의 탑의 문제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아래의 글은 미국 고등교육계에 지도적 영향력을 지닌 커의 저서 『미국 고등교육 고뇌의 시대, 1990년대와 앞날』(1994) 중에서 제7장 "기업과 대학 - 미국의 경험"을 요약하여 옮긴 것이다. 이 글에서 커는 서로 상이한 정체성을 지닌 대학과 기업이 산업사회 속에서 상호 의존도를 높이면서, 그 갖가지 문제성에도 불구하고 '지식 사회'를 실현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 배경에 커는 '교육과 연구의 자유 보장', '이의 제기'라는 대학 문화의 건재를 지적한다. 커에 의해 표명된 미국의 경험은 우리들에게는 적잖은 낙관적 인상을 주거나 대학

과 기업의 바람직한 상호 관련을 위해서는 기업을 중심으로 한 사회 전체의 높은 도덕성과 견식이, 그리고 그에 앞서서 대학의 본질에 대한 대학인과 대학사회의 실천적 인식의 고양에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기업과 대학 - 미국의 경험"

기업과 대학은 제각기 다른 방법으로 독자적으로 발전하여 왔다. 기업은 특히 고등교육의 '인적 투자'의 측면에 매력은 느껴 왔다. 한편 학생들은 대학 입학의 소비자적 측면에 즉 '인생의 한 단편'으로서 대학의 경험을 즐기는 일, 그리고 대학을 마친 뒤 자기 자신의 생활의 문화적 수혜를 준비하는 데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산업계로서는 가장 바람직스럽지 못한 '이의(異議) 제기'라는 고등교육의 또 하나의 목적은 캠퍼스의 계층 구조 속에서 과거보다도 높이 평가되고 있으며 그것은 가까운 정래에 있어서도 그대로 평가될 것이다. 캠퍼스를 그 자신의 삶의 중심으로 여기는 지식인은 어느 때보다도 그 수가 증가되고 학문의 자유를 비롯한 여러 자유에 의해 비호받고 있으며, 탈산업화 사회 속에서 산업 활동의 갖가지 측면(예를 들어 환경으로부터의 착취)에 관해 비판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은 라이오넬 트릴링의 이른바 '대항문화'의 주요 부분이 되고 있다.

대학과 기업은 그 아이덴티티에서는 날로 서로 거리를 증폭하고 이질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자는 또한 상호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 고등교육이 이용하고 있는 부(富)는 그 많은 부분이 산업계에 의해, 산업사회를 통해 창출된 것이요 그것은 (미국)GNP의 2.5%에 이른다. 고등교육은 그 졸업생의 취직의 많은 부분을 산업계에 의존하고 있다. ... (미국)대학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지난 2백년 동안과는 달리 이제 교회가 아니다. 오늘날 대학의 지원자는 다원주의적인 산업화 사회이다.

한편 기업 또한 연구와 기술의 인력을 더욱더 대학에 의존하게 되고 거의 모든 기초 연구는 대학에서 행해지고 있다. 그리고 산업계에 있어 대학은 인재 획득의 최대의 터전이다. 이 점에 있어서 대학과 기업은 실질적인 이익을 누리고 있다. 그 성공의 결실이 오늘날의 '지식 사회'이다. '지식 사회'는 성장과 변화의 중심에 있다. 이러한 추세는 날로 증대될 것이다. 그 역전은 있을

수 없으며 불가능할 것이다. 프리츠 마할럽은 언젠가 (극히 대략적으로 정의하여) '지의 생산과 분배'는 GNP의 약 30%를 구성한다고 산정하였다. 그러므로 기업계는, 전에 없이 대학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저하된 반면에 의존도는 높아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 대학사회는 기업의 지도력으로부터의 지적 독립을 높이는 한편, 산업 생산 자원의 의존도는 증대되고 있다. 기업과 대학은 아이덴티티에 있어서는 분리의 폭이 증폭되어 가나 그 실제 활동 영역에서는 상호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 양자는 서로 의혹의 눈으로 상대를 보고 있으나 저마다의 생존을 위해 상호 속박하고 있다. 철학적으로는 목적을 달리하나 현실적 실천에서는 협력하고 있다.

미국 대학의 전 이사회 회원 중의 약 40%가 산업계 및 기업 출신이며 MIT의 경우는 거의 1백%에 이른다. 산업계와 기업은 대학 졸업자의 약 50%를 흡수하고 있다. 그런데 "교수단에 교육과 연구의 자유를 제공하고 있는가"하는 물음에 대해 대학 이사회 이사장의 94%, 총장의 93%, 교수단 수뇌부의 83%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산업계와 대학의 밀접한 관련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필연적으로 낳고 있다.

- ① 학술 연구의 경향이 경영학, 공학 혹은 지난날 농학이라고 일컬었던 분야 등 기업의 취향에 따르는 영역으로 모아지고 인문학에서 벗어나는 추세에 있다.
- ② 연구 분야에서도 보다 응용적인 영역의 활동이 활발하다.
- ③ 전반적으로 소규모의 기관보다도 대규모의 기관을 지원하는 경향이 있다.
- ④ 대체로 고등교육 제도권에서 사회적 지원이 불균형으로 나타나고 과학기술 지향의 연구대학, 노동시장에 대응하는 4년제 칼리지나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에 대한 지원이 집중된다.
- ⑤ 많은 교수가 그의 사고-시간-에너지를 교육 및 기초 연구보다도 기업가적인 활동에 소모하여 그 결과 수입이 많은 기업가형 대학인과 수입이 적은 연구 지향형 연구자라는 두 계급의 교수층이 생겨났다.
- ⑥ 교수 사회에서는 학술적이기보다는 투기적 성격이 날로 배양되고 의사지적(疑以策略)인 어둠의 세계의 출현을 촉진

한다.

- ⑦ 대학 '이데올로기'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노력이 지원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대개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 ⑧ 공학 및 경영학 같은 학내에서 정치적으로 '안전'한 분야의 학생 내지 학부의 비율을 증폭시키고 사회학과 같은 대항문화(對抗文化)의 영역을 감소시키는 추세에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여 대학과 기업간의 날로 증대된 의존도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회 비평가가 예고한 위기는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았다. '산업계의 장(長)'이 '학문의 장'보다도 날로 우세해지는 사태도 일어나지 않고, 학문 정신의 퇴폐도 일어나지 않았으며 많은 마르크스주의자가 예고한 바, 고등교육의 잠재적 공헌이 우세한 재생산 기능에 전체적으로 굴복하는 사태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학문 윤리의 전체적 파기가 아닌 개인 윤리의 남용이 빈발하고 있다. MIT나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은 영혼을 악마에게 팔지 않았다. '파우스트'의 거래는 미성숙한 대학에 의해 특히 그 대학의 특정한 교수들에 의해 일어나기 쉽다.

11. 1968년 5월의 '스튜던트 파워'

1968년 5월 파리의 이른바 '학생혁명'을 절정으로 '70년 전후 서유럽·미국·일본 등 고도기술 산업사회에서 일어난 이른바 '스튜던트 파워' 운동은, 반제(反帝)-반봉건적인 후진국에서의 학생운동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반체제적인 특징을 지녔다. 선진 산업사회의 위기적 상황은 '비동시적인 것의 동시적 공존(칼 만하임)이라는 세대간의 단절 내지 분열에 크게 기인한다. 정체성의 파탄이라는 일찍이 없었던 위기의 한복판에 전 시대의 개념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학생 집단이 자리하였다. 이 학생 집단은 리스먼이 『대학 혁명』(1968)에서 특징지었듯이 정치·사회적인 일체감은 물론 앞선 세대의 문화적 개념까지도 거부하였다. 그들의 '반란 Revolution'은 국가에 대한 도전으로서 발동되었다. 그것은 국가야말로 체제

중의 체제를 상징하는 존재인 까닭이었다.

학생운동이 한창일 때 서독에서는 부친과 동일한 정치적 입장을 지닌 젊은 세대는 겨우 4%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은 국가는 물론 사회와 문화 체제를 몽땅 일관하여 권력 체계로서 부정한 점에 있다. '스튜던트 파워' 운동은 궁극적으로는 바로 문화혁명이었다.

먼저 '5월의 혁명'의 나날들을 추적해 보자. 5월 3일 파리 대학의 낭테르 분교에서는 소수의 학생들이 남녀 간의 대학 기숙사 방문의 자유를 주장하여 소동을 일으켰다. 이어 약 1천여 좌파 학생들이 강의실에 침입하고 교수실까지 점거하는 한편 '제국주의 투쟁에서 학생의 역할'이라는 주제를 내걸고 24시간 동안 세미나를 열었다. 이에 맞서 정부 당국은 학원을 폐쇄하였다. 그 뒤 소르본에서는 6천여 명의 학생들이 항의 집회를 가졌다. 그러자 캠퍼스에 경찰이 투입되고 소르본 소재의 라틴구에서는 학생과 경찰 기동대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다. 그 뒤 항의 집회·항의 데모가 거듭되면서 데모 학생의 수는 5만 명으로 불어나고 그에 교수와 노조 지도자들 그리고 사르트르, 게랑을 비롯한 지식인들도 가세하였으며 마침내 5월 10일의 '바리케이드의 밤'을 맞게 되었다.

이제 운동의 주체는 '일반' 학생이 되었다. 그러한 배경에는 정부의 구태의연한 교육 정책과 대학의 전근대적 현실이 크게 작용하였다. 프랑스에서 '대학 제도의 위기'가 논의된 지는 오래된다. 논의의 핵심은 대학의 대중화에 따르지 못한 교육과 연구시설의 미비, 마치 중세 길드 조직을 방불케 하는 대학 관리와 학풍, 교육의 부재와 전문 지식의 공동화(空洞化), '배를 가라앉게 하여 유능한 자만을 구조하는 방식'의 각급 학교의 '가혹한' 시험 제도, 학사 실업자의 양산 등이었다. 1966년의 경우 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은 10%였다. 이러한 현상은 학생들을 위기의식에 사로잡히게 하여 '대학을 뒤집어 놓아야 한다'는 논의가 공공연히 일어나게 하였고, 대학을 둘러싼 정치·사회·문화 전체에 대한 과격한 운

동에 학생들을 투신하게 하였다. 교육 특히 고등교육 기관은 바로 사회 체제 그 자체의 반영이다. 1968년 전후의 학생반란은 바로 선진 산업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들어난 '내분'이 아니었던가.

대기업과 국가의 생산 체제 및 권력 전략에 의해 조작되는 고등교육 기관의 규범이 상실된 현실은 날로 사회의 무정부적인 작태를 조장하였으니 학생반란은 어느 학생이 부르짖었듯이 바로 오늘날의 '문명에 대한 투쟁'이었다. 학원 문제에서 출발하여 사회 전체에 '지속적인 이의(異議)'를 제기한 파리의 문화혁명의 첫 화살은 체제와 억압의 도구로 기능한 것으로 여겨진 대학으로 향했다.

붉은 깃발, 아나키즘의 흑색 깃발, 베트콩과 쿠바의 깃발이 휘날리는 60여 곳의 바리케이드를 파리 도심에 출현시킨 5월 10일의 '바리케이드의 밤' 이래 운동의 주체는 일반 학생들로부터 다시 '한 줌의 분쟁'이 들로 옮겨졌다. 그들은 이데올로기와 투쟁 경력으로 무장된 '전문적' 학생운동가들이었다. 그들의 수는 전체 학생(68년 직전 약 60만 명)의 1%~2%로 추산되었다. 대개가 좌파에 속한 그 과격파는 학생도 참가한 '대학 경영의 공동 관리'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그 선두에 콩방디 Cohn Bendit, 제스마르 Geismar 및 수바조 Soub Ageot가 섰다.

'파리의 5월'의 주인공은 아나키스트요, 로빈 훗 같은 유태계 독일 출신의 콩방디였다. '프랑스 학생 전국동맹 FNEF'과 함께 운동의 주도 세력이던 교원 노조의 지도자 제스마르는 공산당을 비롯한 모든 정당과 조직을 기성 체제로서 철저히 부인하였다. 이들에 의해 마르크스, 레닌, 모택동, 게바라의 초상화가 거리거리에 임립(林立)하였다. 데모 학생들은 소르본을 점거하고 대학 관리 위원회를 조직하고 소르본을 '자유대학'으로 선포하였다. 그들은 '사소한' 개혁 따위는 관심이 없었으며 철저한 사회·문화의 변혁을 쟁취하고자 하였다. 학생·노동자들 그리고 좌파 여러 정당의 지도자도 가세한 약 1백만

명을 헤아린 13일의 데모 이후 2개월간 '학생 권력', '문화 혁명'의 구호가 프랑스 전역을 뒤흔들었다.

그러면 '학생 권력'이란 무엇인가. 수바조는 그것을 공장을 노동자 손에 넣는 '노동자 권력'과의 관련에서 "대학을 학생 손에 넣는 것이다."라고 규정하였다. 이 주장은 유럽 전역으로 메아리쳤다. 대학은 이제 학생 혁명가들에 의해 사회·문화 혁명의 진초 기지화하였다. 그들은 기존 체제를 '결정적으로 거부'하며 '참가하는 민주주의'를 주장하였다. 마르크스주의와 프로이트가 혼합된 마르크주의 신좌익 이론이 가장 매력적인 이데올로기로 받아들여졌다.

같은 무렵 독일 학생반란을 지도할 사회주의 독일 학생동맹SDS의 영도자 두취케Dutshke는 마르크제 이론의 신봉자로서 '영구 혁명'을 주장, 끊임없는 투쟁의 과정을 통해 학생과 대중을 '의식화'하고자 하였다. 그의 이론과 활동에 대한 서독 학생의 반응은 지지가 27%, 반대가 44%, 무관심이 29%였다. 이렇듯 학생의 대다수는 그 혁명 이론에 비판적이었다. 그러나 데모가 벌어지면 그들은 과격파에 추종하였다. 어깨동무를 하고 목이 터져라 '반대'를 외치는 순간, 학생들은 '참가'라는 애로스적인 자기 도취에 빠졌다.

'학생 권력'은 70년대 초에 이르러 '청년 문화' 운동으로 바뀌어졌다. 정치와 이데올로기의 좌절에 연동된, 기성 체제와 가치관에 기초를 둔 일반 문화와의 차별을 들 어낸 반사회적, 반문화적인 '청년문화'의 태동, 그 상징인 히피hippie는 '혁명의 아들'에 뒤이은 고도 산업사회가 낳은 서자(庶子)가 아니었던가. 교수 무용(無用)의 대학을 주장하고 일부일처제에 기초를 둔 가족 제도의 폐지를 인간 해방의 첫걸음으로 추창한 그들을 우리들은 '이유 없는 반항', '정체 불명'으로만 부정할 것인가.

유럽과 미국의 대학 및 지식사회는 그간의 학생반란을 불가피하고 바람직한 '대학 개혁 운동'으로 평가하고 특히 그 역사 의식과 사회 의식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과격파의 규탄의 표적이던 프랑크푸르트학파의 하버마

스는 '과격한 개혁주의가 이룩할 수 있는 정통성'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였다. 그러한 긍정적인 시각은 지식사회를 넘어 체제 핵심부에서도 나타났다. 5월 반란이 한창일 때 대통령 드골은 학생들의 주장을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하고 대학 제도의 근본적 개혁 및 그것을 위한 교수와 학생의 참여를 촉구하는 한편 국민의 '참여'에 의한 '참여의 사회' 건설을 역설하였다. 드골의 약속은 같은 해 10월 국민의회를 통과한 "고등교육 기본법"에 의해 지켜졌다. 이 기본법은 고등교육의 철저한 국가 관리를 규정한 나폴레옹 학제(學制)를 타파한 것으로서 학생을 대학 공동체의 한 요소로서 인정하고 학생 '참가'의 권리를 부여함을 특징으로 한다. 이 법안 제정에 앞서 폴 교육장관은 수바조, 제스마르 등 5월의 투사들과 끈기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한편 70년대 이래 학생 운동·대학문제·젊은 세대의 의식 및 행동의 양태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사회학적 이론화가 진행되고 새로운 학문의 장르가 이룩되었다. 이렇듯 1968년 5월의 학생반란은 하나의 '혁명'으로서 역사적인 의의를 획득하고 있는 것이다. 아래에 요약하여 옮기는 "프랑스 고등교육 기본법"은 68년 이후 세계 여러 나라 대학의 '민주적 개혁'에 선도적 역할을 다하였다.

"프랑스 고등교육 기본법"

(1) 대학의 제도(생략)

(2) 대학 관리의 자치와 참가

학술 기관 및 대학의 관리는 이사회에 의해 시행되고 교육 - 연구 단위(unit)는 이사회가 선출하는 장(長)에 의해 지휘된다. 즉 종래의 중앙집권적인 프랑스의 학구제(學區制) 총장인 대학 학장은 대통령 임명이고 학부장은 대학 추천으로 교육부 장관이 임명하였으나 새 법안에 의해 이사회의 선거로 선출된다. 그리고 이사회는 참가의 정신에 의해 교수·연구원·학생 및 사무 직원으로 구성된다.

(3) 학생의 참가

학생은 대학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대학 및 각 교육 연구

단위의 운영에 참가할 수 있다. 그 비율은 교수·조교수·강사 등 교원 대표는 학생이 참가하는 이사회에 있어 적어도 동수여야 한다. 또 이사회에는 대학(인) 이외의 국외자 즉 학식 경험자와 같은 인물을 이사회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 3분의 1 미만으로 참가하게 한다. 학생 대표는 최고 3분의 1까지의 결정권을 갖는다.

이사회의 학생 대표의 선출은 각 학과(學科)와 같은 단위에서 선출한다. 학생 대표의 선거에 있어 투표율이 60% 이하일 때에는 비례 대표제가 된다.

(4) 대학의 자치

교육과 연구는 어떠한 경우에도 중립이어야 한다. 학생은 공공의 질서를 해치지 않는 정도로 정치적·사회적인 자유를 지닐 수 있다. 시설물(학생회관과 같은)의 관리는 이사장 혹은 교육 연구 단위의 소장이 행한다. 학생 참가가 허용되지 않는 영역은 시험, 교원의 채용, 승진 등의 인사 문제, 학위의 수여 등이다.

그러나 그 밖의 대학의 모든 재정적·교육적인 결정에는 학생이 참가할 수 있다.

1968년 3월 파리대학에서는 이 기본법에 따라서 학생 대표의 선거가 행해졌다. 소르본 구내에는 기본법에 대한 보수파와 중도파 학생들의 지지 성명과 함께 '참가는 학생의 권리를 탄압하는 구실이다.', '포로개혁법을 분쇄하기 위해 학생 참가를 거부하자'는 전학련의 전단이 여기저기에 붙여졌다. 전학련의 사무국장은 그 반대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학생 참가를 중심으로 하는 포로의 개혁안은 학생을 값싸게 양성하고 월급쟁이로 만들어 자본주의 체제에 봉사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 정치적인 의도는 학생을 참가시켜 고용주 측의 요구에 대학을 적응시키려는 계획을, 학생들 자신에 의해 보장시키고자 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 보장을 부여함을 거부하는 것이다" 제1회의 선거는 전국 평균 52%의 투표율을 보였다. 대학가의 '지속적인 이의'는 계속된 것이다. 그리고 그 '이의'야말로 대학 문화의

본질이요 징표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12. 버클리 철학

1968년 5월의 학생반란은 유럽과 미국의 대학사회에 큰 충격을 주어 '68년 5월 세대'라는 변혁을 지향하는 젊은 지식인 집단을 창출하였다. 그 한편 많은 대학이 '대학 문제'의 구조적인 심각성을 인식하여 운영과 학풍을 중심으로 한 대학 쇄신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하는 한편, 제도적으로도 갖가지 개혁에 거고적으로 착수하였다. 68년 이전에 이미 미국에서 학생운동이 가장 격심하였던 버클리 대학의 경우 65년 3월 교육특별위원회를 설치, 대학 개혁의 프로그램에 착수하였다. 아래에 요약하여 옮기는 "버클리의 철학"은 66년 3월에 동 위원회에 의해 작성된 보고서(전문 228쪽)의 제1장 서설이다. 이 글은 바야흐로 대학 개혁의 와중에 놓여 있는 이 땅의 대학문제에 관심이 있는 많은 관련자들에게 시사하는 바 적지 않다고 할 것이다.

"버클리의 철학"

우리는 거대한 국내적 국제적인 발전의 일환으로서 고등교육의 역사적 위기에 대한 회답을 긴급히 필요로 하고 있다. 이 위기의 주요한 이유는 곧 바로 확인될 듯 싶다. 현대 사회에서의 변화, 지식의 증식, 인구 증대, 사회적 기대의 변화, 새로운 세대의 학생 출현 등이 그것이다. 이렇듯 대학을 구성하는 거의 모든 주요한 요소 - 교사·학생·지식 자체 및 이들의 사회적 기반은 일찍이 없었던 변혁의 상황에 있다. 그 결과 광범위한 변화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우리의 첫번째 의무의 하나는 버클리의 교육의 갖가지 요소를 보다 더 조화롭게 하고 미래의 변화에 대해 학원의 안정을 유지하는 방법에 진지하게 접근하는 일이다. 그 까닭은 고도의 과학 기술, 엄청난 사회·경제력의 세계에 있어 미래를 약속하는 것은 정체가 아니라 가속적 변화이기 때문이다. 이 세계에서 살아남고 번영하는 대학이란 다른 모든 중요한 제도가 그렇듯이

변화를 받아들이면서 그 통합과 안정을 유지하는 대학일 것이다.

학문 공동체가 영속적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학이 오랫동안 정체한 뒤 급격히 조정하고 그 충격에 시달려야 하는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계속하여 변혁하는 편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구체적인 많은 권고는 실질적인 실험을 위한 것이요 미검증의 대규모 변혁을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관점에서 '모든' 학생과 '모든' 학과에 대해 규칙의 테두리를 세우고자 하는 유혹을 가능한 한 피하였다.

우리들은 일정한 변혁이 언제 어디에서 항구적으로 채택되어야 하는가를 결정함에 성실한 실험임을 굳게 믿는다. 여러 개혁이 가장 성공하기 쉽다고 생각되는 것은 그것들이 선택의 여지를 남기고 그 위에 실시 내지 실험적 시행(試行)을 위한 수단이 제공되고 수익 예정자의 판단에 맡겨질 경우이다.

우리들은 전적으로 동일한 관점에서 개개 학생의 교육을 생각한다. 우리의 학생 집단은 너무나 거대하고 다양성이 크며 변화하고 있음으로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공식은 대개 적합하지 않다. 학생수나 그 규모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학생은 두려운 재산이다. 우리들은 한 종류의 교육에 한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들은 현행 교과 과정보다도 풍부하고 다원적인 커리큘럼을, 학생의 다양성에 더욱 잘 합치된 교육의 총체적인 스펙트럼을 창출할 방안을 지니고 있다. 학생에게 풍요한 기회, 관대한 지도, 많은 실험이라는 여지가 주어지고, 그들이 자신의 교육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가능한 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학생에 대한 우리들의 이상이다.

교과 과정에 관한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제안은 우리의 가장 긴급한 요청에 대응해 제기되고 있다. ... 학부 학생이든 대학원 학생이든 많은 학생에 있어 인간으로서 또 시민으로서 제1의 관심사와 교육사이에 는 이제까지 적절한 연결이 존재하지 않았다. 우리들은 이 연결을 더 한층 분명하게 하고 우리의 강의 내용이 시대에 뒤떨어진 까닭에 절실한 인간적 관심과의 접촉을 상실한 것들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

대학은 전문가 양성에 지나치게 몰두하고 있으며 우리들은 편협함과 할거주의라는 영원한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신입생에게는 지나치게 일찍부터 전문화를 요구하지 않도록 보호할 필

요가 있다. 동시에 우리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알고 있는 학생에게는 적시에 충분한 활동 영역을 부여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때때로 풍요한 결실의 새 원천이 되고 학생들로 하여금 넓은 지성과 특수한 관심의 전망으로 나아가게 하는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광대한 캠퍼스의 비인격성, '소외' 감에 대해 우리들은 오리엔테이션, 조언(助言), 학급 규모의 세미나, 개인 지도 tutorials, 그룹 지도 및 대학의 정책 결정에서의 학생의 발언의 채택에 관해서도 특별한 권고를 하였다. 학교 생활의 의미 관련을 명백히 하기 위해 우리들은 많은 방도를 권고한다. 그 중에는 입문 코스에서 '개론' 적 방법보다도 '문제 지향' 적 방법의 채택, '특별' 코스의 설정, 선택 과목으로서 '실지 조사' 의 설정, 대학원 교과목을 개인에 맞추어, 장래의 교직에 보다 더 잘 적합시킨다는 권고도 포함된다. ... 대학은 전 학생의 일반교육 general education을 위해 더욱 큰 공식적 책임이 긴급히 요청된다. 그리하여 전문학부에 대해서는 현행의 학습 계획과는 다른 계획을 준비하고 학생이 자기의 전문 분야 이외에서 실험할 수 있도록 성적을 중요시하지 않고, 한편 교양학부에 대해서는 '교양 필수' 라는 새 개념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

연구(내지 창조성)야말로 버클리의 특징이다. 연구 없이는 버클리는 다른 학원과의 구별이 없어질 것이다. 주(州)제도 자체가 교육 기관의 다양화에 충실하고 있으나 그 중에서도 버클리 대학은 진실로 탁월한 연구 수준을 유지할 의무를 지닌다. 우리들은 '교육' 과 '연구' 는 양립될 수 없다는 가정에 기초한 단순한 공식론을 배제한다. 그보다도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교육과 연구의 상호 촉진이 보다 더 잘 실현되는가를 시사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본 버클리 대학에 정당함을 인식한다. 이 점에서 우리들의 이상은 연구의 흥분과 권위에 가득 찬 교육이며, 교육의 인간적 요구에 호응하는 연구이다. 우리들의 이상적인 교수란 초서의 서기(書記)와도 같이 '기쁨에 차 배우고 기쁨으로 가르치는' 인물이다.

교육과 연구의 긴밀한 상호 침투에 의해 본 학원에 특별한 성격이 부여될 뿐만 아니라 그에 의해 ... 다원적인 제도는 극히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바 그 밑바닥에 있는 공분모(公分母)는 무엇인가. 우리의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지녀야 할 것

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우리의 해답은 이념적으로 말하면 그들 학생은 과학적이며 인도적인 고귀한 자세에 공통적으로 접하고 그 자세가 우리를 모두의 행위 속에서 예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버클리의 교육에 궁극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우리들이 가르치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양식이다. 우리는 버클리에 대해 학자가 아닌 교사라는 이념을 거절한다. ... 학식 이아말로 뛰어난 교육을 추진하는 것이다. 또 타인을 가르친다는 것은 교사의 인간적 요구의 큰 부분을 이념으로 긴 안목으로 보아야 학식의 필요의 근거가 되는 것은 이 인간적인 요구뿐이다.

같은 이유로 하여 교사가 아닌 단순한 연구자를 교수진으로 맞이할 여지는 없다. '교육에서 유리된' 학자에게는 연구소나 기업이 적당하다. 그러나 대학의 이상은 학문이 교육에 봉사하는 이상이어야 한다. ... 교육에 의해 우리들은 우리의 학문이 인간적 의미 관련을 지니고 있는가 하는 여부를 직접 테스트하고 우리들 자신이 젊은 이들의 고유한 노력의 목표가 되고자 향상한다. 빈약한 교육이나 교육의 경시를 우리 대학에서 옹호할 수는 없다. 궁극적으로 말하여 교육의 경시는 우리들의 연구 그 자체의 의미를 해친다. 왜냐하면 교육의 경시는 비인도적이며 학문의 정신과 조화하지 않기 때문이다. ...

대학은 계속적인 적응과 변혁의 능력을 학원 속에서 구축해야 했다. 학원 속에서 시행과 실험의 지속적인 전통을 세웠어

야 했다. 우리들의 이러한 전통을 항구화하기 위해 제출하고 있는 여러 제안은 아마도 이 보고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제안일 것이다. **44**

〈참고문헌〉

- 이광주, "1968년 5월 학생혁명", 『情念으로서의 歷史』, 文學과 知性社, 1987.
- 이광주, 『大學史』, 민음사, 1997.
- Berkeley(U,C) Academic Senate, *Education at Berkeley* : Report of the Select Committee on Education, 1966.
- Clark Kerr, *Troubled Times for American Higher Education* : The 1990s and Beyond, 1994
- Soub Ageot J., A.Geismar, D.Cohn-Bendit, *La Révolte Etudiante*, 1968, 일어역 『학생반란』, 1968

이광주

고려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연구하였으며, 충남대·전주대·인제대 교수를 역임하였고, 현재 인재대 명예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대학사』, 『지식인과 권력』, 『유럽사회 풍속산책』 등이 있다.